

조이시(Giosy) 신부님은 32년 동안 (pastorale musicale) 음악적 사목활동을 하시면서 1000곡이 넘는 노래를 작곡하셨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프랑스, 미국, 아프리카, 유고슬라비아, 독일, 교황님도 참석하신 바티칸, 그리고 스위스 등의 여러 나라에서 2000번 넘게 콘서트를 여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조이시(Giosy)신부님을 “인류가운데서의 하느님 tam-tam 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가장 개성 있게 표현했습니다..

지체부자유자인 자녀를 두신 어머니는 그분을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즐거움을 동시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이라고 감동적으로 표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조이시 신부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잘 쓰시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분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진실하고 정확한 표현은 “하느님을 노래하는 신부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이시 첸토(gioisy cento)신부님은 194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사제생활을 하신지 34년 됐고,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의 ‘민스트럴’을 하신지 (복음을 노래하며 돌아다니신지) 34년 됐습니다. 이 분은 조명 빛을 찾아다니시지 않고 검소한 길모퉁이, 혹은 광장을 찾아다니십니다. 거기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음악과 노래로, 그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대를 “설교대”로, 음악을 “기도”로, 노래 구절을 ‘이야기’로 변화시킵니다. 농부가 쟁기를 이용하듯 조이시 신부님은 노래를 이용하십니다. 음표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인생인 밭고랑에 뿌리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그의 콘서트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딱 맞다고 할 것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구하는 사제이십니다. 그분은 친구이자 형제이자 아버지이십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는 그분은 말도하고 질문도하고 대화도 나누고 장난도 치시지만 듣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조이시 신부님의 콘서트에 가는 것은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노래에는 인간의 의문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심장 박동이 담겼습니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역사도 조금씩 담겼습니다. 이 노래들은 사람들에게 “씨앗” 하나를 남깁니다. 자극시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들이 자기 이야기 같이 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맑은 믿음의 목소리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 밝은 신부님은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질문의 메아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은 나한테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조이시 신부님의 콘서트는 직접 가봐야 압니다.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이시 신부님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증인들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마더 데레사의 뒤를 이어 사랑의 선교회 회장이 되신 니르말라 수녀님 (Nirmala) 의 친구시고, 테제공동체의 로제수사(Frere Roger of Taize’), 프랑수아 사비에르.....추기경님(Francois Xavier Nguyen Van Thuan) 오레스테 벤지 신부님(Don Oreste Benzi), 라슈공동체의 설립자 진바니어(Jean Vanier), 에르네스토 올리비에로 (Ernesto Oliviero) 유티의 보컬인 “보노 박스” (Paul David ‘Bono Vox’, Hewson-U2 Leader) , 론 (Ron),마리엘라 나바 (Mariella Nava), 마리오 카스텔누오보(Mario Castelnuovo)의 친구이십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거리를 집으로 삼은 이들을 위한 시설인 성남의 “안나의 집”에서 봉사하는 선교사, 그가 한국에 방문하러 온, 빈첸시오 보르도의 김 하 종, 친구이자 스승이시기도 합니다).